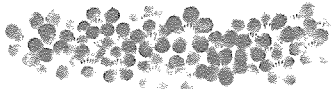


지부팀방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박종환 원장, “울산시민 건강 위해 매진한다”

일건(一建), 이처(二妻), 삼재(三財), 사사(四事), 오우(五友)라는 옛말이 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요, 둘째는 아내, 셋째는 재물, 넷째는 일, 다섯째는 친구라는 얘기다. 그만큼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인생에서 으뜸이다.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은 증상이 나타나 치료했을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능률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진단의 의미는 크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종합건강진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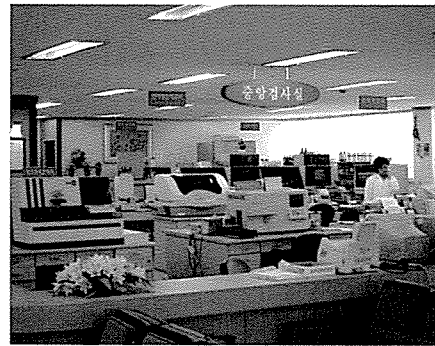
관으로서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큰 틀 속에서 탄생했으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0여 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울산광역시지부는 건강관리협회의 막내 지부로서 울산시의광역시 승격과 함께 출범하여 설립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울산광역시 지부는 공의 의료기관으로써 누구나 부담없이 양질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첨단의료시설과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 및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종환 원장(내과전문 의)의 얘기다.

저렴한 비용으로 결과도 하루만에

울산광역시지부는 검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공인 평가기관인 ‘대한 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성적의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





박종환 원장은 건강관리협회가 다양한 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에 적합한 맞춤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절약형 종합검진의 경우 남·여 75개 검사항목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30만원대 수준의 종합검진료와 비교해 볼때 1/2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아 누구나 부담없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는 건강진단을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되어 검사 결과는 자료를 100%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진단 이상소견자는 울산광역시지부가 공익의료기관과 연계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밖에 이용자들이 의료기관이라 낯선 환경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건협 울산광역시지부는 항상 진단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빈다.

박종환 원장은 건강관리협회가 다양한 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에 적합한 맞춤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절약형 종합검진의 경우 남·여 공히 14만~16만원대 이면 75개 검사항목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30만원대 수준의 종합검진료와 비교해 볼때 1/2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아 누구나 부담없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받아야

건강은 평소 건강할 때 지켜야 하며 바람직한 건강관리를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과 더불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박종환 원장은 말한다. 울산광역시지부는 앞으로 국민건강의 길라잡이로서 보건예방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 보건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정기검진 사업을 점차 확대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울산의 건강지킴이’, ‘울산의 건강파수꾼’이라고 불리워도 좋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시민들의 기대가 새삼 모아지고 있다. 